

안상선 M로보 대표 "MVP는 경운기 만드는 과정"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빅데이터
해커톤 설명회서 최소사양제품
실사례 공유...해커톤 참여 26일까지 접수

이상덕 기자 기자 입력 : 2019.04.05 14:24:10

"최소사양제품은 고급차가 아니라 경운기 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로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창업허브에서 '뉴스빅데이터 해커톤 설명회'가 4일 열렸다. 이 자리에선 로봇저널리즘 서비스를 상용화한 (주)엠로보의 안상선 대표가 MVP(최소사양제품·Minimum Value Product) 개발 방법과 시장규모 추정에 대해 실제 경험 사례를 발표했다.

M로보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기업들이 올리는 공시정보를 뉴스형태로 변환하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지난달 자동화 뉴스생산 5000건을 기록했으며 오는 6월 이전까지 대부분의 1보 수준의 증권기사를 자동화할 방침이다. 또 M로보는 현재 모 신문사에 공시를 뉴스로 자동생성하는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으며, 지난해 행정안전부장관상, 특허청장상 등 각종 정부 시상을 받은 바 있다.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해커톤 설명회 현장. <사진제공=한국언론진흥재단>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안상선 대표는 MVP에 대해 "서비스를 처음부터 잘 만들려고 하지 말라. 기본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며 "비유하면 자동차 만들기 전에 경운기 부터 만드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고객과 문제점 부터 정확히 정의해야한다"면서 "이게 서비스 개발의 시작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안 대표는 "기획서는 스토리텔링처럼 설득이 잘돼야한다"며 "특히 같은 팀의 개발자와 디자이너 부터 설득해야한다"고 말했다.



△안상선 M로보 대표가 PT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언론진흥재단>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날 '뉴스빅데이터 해커톤 설명회'에는 뉴스빅데이터 해커톤 대회 개요설명, 서비스 개발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교육도 이뤄졌다. 서비스 개발을 위한 데이터 분석은 연세대학교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가르치는 이광춘 교수가 텍스트 분석 방법을 소개했다. 또 설명회 마지막 시간에는 해커톤 팀빌 등을 위한 별도 세션이 마련됐다. 박재현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빅데이터팀장은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융합한 혁신적인 뉴스 데이터 서비스가 등장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설명회 신청자는 당초 80명이었지만, 설명회에서는 120명이 넘는 인원이 몰려 인길을 끌었다. 그만큼 뉴스 데이터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반영된 셈이다. 뉴스빅데이터 해커톤은 뉴스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경진 대회다. 해커톤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일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결과물을 만드는 대회다.

이번 해커톤 참가자들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빅데이터 서비스인 빅카인즈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개발해야한다. 신청자격은 빅데이터에 관심 있는 국민으로 2~5명까지 팀을 이룰 수 있고 신청은 오는 4월 26일 마감이다. 자세한 내용은 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라클 어헤드 이상덕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